

# 녹색성장시대의 건축 역할과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의 유감

## Roles of Architects in the Age of Green Growth and Regrets about Organization of Committee on Green Growth

건축은 사회와 함께 변화하면서 그 시대를 반영한다. 해방 후 6.25 전쟁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건축물은 많이 파괴되었고 폐허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건축역사는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5.16 혁명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면서 시작된 건축 붐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작년에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불황이 건축경기를 멈춰 거리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당분간은 더욱 선진화 하면서 첨단 기술이 이용되는 건설이 계속 될 전망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축은 시대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아름답고, 튼튼하고, 쾌적한 공간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창출할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도시환경문제, 지구환경문제가 사회적,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 되면서 건축은 지금까지의 「품질」, 「비용」이라는 목표에 추가하여 「환경」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건축은 설계, 자재생산, 시공, 유지관리, 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Life cycle)를 통하여 방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며, 특히 유지관리 과정에서는 건물의 냉난방, 조명 등의 건축설비에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化石燃料)를 연소하면서 CO<sub>2</sub>를 발생하는데 이것은 지구 온난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PC)」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까지처럼 아무 대책 없이 화석 연료의 소비가 증가하고, 계속되는 삼림자원의 파괴를 막지 않으면 폭풍우나 가뭄 등 다양한 자연 재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식량 등의 생산에도 차질이 생겨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조차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이유로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회의, 협약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세계적 움직임은 우리의 관심과 의식에도 크게 영향을 주어 최근 건축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건축」, 「친환경 건축」, 「건강 주택」, 「생태 주택」 등의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다.

우리정부는 작년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언한 후 범국민적으로 지구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원위기에 대처하면서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주요 정부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도 지구의 일원으로 마땅히 취해야 할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선진국에 비하여 너무 늦은 감이 있기도 하다.

정부에서 제시한 녹색성장 추진방향은 신 성장 동력확충, 삶의 질과 환경개선, 국가위상 건립의 3대 분야의 10대 정책으로 되어 있다. 10대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녹색성장 국가를 이룩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이 필요한 부분과 기술의 홍보, 보급, 산업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정책지원, 금융지원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전자의 기술개발의 경우에는 모든 기술분야가 역량을 모아야 할 것 같으며 많은 부분이 건축과 깊은 관계가 있고, 건축가 또는 건축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다. 아 니 건축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이 녹색성장의 기술개발을 위하여서는 현재에 우리의 역량과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에 관한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녹색성장에 관련된 건축전문가 또는 건축기술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건축단체연합(FIKA)에 속해 있는 건축 3단체를 비롯한 많은 전문학회, 협회 등의 단체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들 단체들은 국가적 사업을 위하여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 정부정책을 심의하고, 정책추진방향결정의 중심체가 될 것 같은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건축전문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찌된 일인가? 그 동안 우리 건축인이 너무나 「품질」, 「비용」만을 강조하고 「환경」의 가치를 등한시 해 옴으로서 건축계를 보는 사회적 시각이 녹색성장과는 관계없는 분야가 된 것인가? 생각해 보면, 녹색성장 10대 정책에 열거되는 녹색도시, 그린홈 등은 건축과 직접 관계가 있으며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 재생에너지와 LED 조명 등 고효율 제품의 적용, 보급 확대도 많은 부분 건축을 통하여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녹색성장위원회 등에도 건축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 건축인, 건축단체들도 힘을 모아 국가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건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에서는 건축인, 건축단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 더불어 정부와 관련기관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성공하기 위하여 건축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이해하고 많은 건축인의 의견을 반영하며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 ■



손장열 / Sohn, Jang-yeul  
대한건축학회 회장, FKA 대표회장

### 약력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부
- 일본 동경 공업대학(TIT) 대학원 건축학과 졸업(공학박사)
- 한양대학교 교수, 건축대학 학장
- 한국생활환경학회 회장, 명예회장
- 한국공기청정협회 회장, 명예회장